

함께하는 FTA

October 2014 vol. 29



커버 스토리: 미리 준비하는 한·중 FTA 활용 가이드

자상중계: FTA 비즈니스 포럼(대전/충남)

파워 인터뷰: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한·캐나다 FTA가 정식 서명되었습니다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민방문 기간 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캐나다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북미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최초로 맺는 FTA인 만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FTA 경제영토 선도국 한국의 FTA 현황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 서명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협상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15개국), 뉴질랜드 협상재개 여건조성 일본, 멕시코, GCC(6개국)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ERCOSUR(4개국), 이스라엘, 중미(5개국), 말레이시아

박현용 인포마스터 컨설턴트

“FTA는 협상·체결보다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박현용 컨설턴트(39)가 속한 인포마스터(Infomaster)는 공공(公共)컨설팅 전문회사다. ‘공공정책도 컨설팅을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박 컨설턴트는 “자칫 관료화될 수 있는 정부조직과 일반 국민의 인식 차이를 메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답한다. 또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가 담당하는 공공정책의 영역은 ‘청와대부터 마을 이장까지’라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거시적인 정책 제안은 짐작이 가지만, ‘마을 이장’과는 무엇을 했을까. “정부는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시골 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장 시골 마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국내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 마을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조연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을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건물을 리모델링해 문화·복지·판매·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대학교 때 무역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원(석·박사)에서도 국제경제를 전공했다. 한 때 로펌에서 관세전문관으로 일하며 관세환급, 무역 관련 소송 자문을 하며 무역업 실무를 경험한 바 있다. FTA에 대해 진지하게 접해본 것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우리나라 FTA 10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으면서다. 이 조사를 통해 그는 “FTA에 대해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제대로 아는 것 같지는 않다.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은 협상·체결에만 과도하게 집중되고, 일단 체결된 뒤에는 관심이 뚝 끊어진다.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그는 FTA가 체결된 이후 통관이 보다 투명해진 것을 FTA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고 있다. “이전까지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통관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FTA 무역이 대세가 되면서 누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향후 박 컨설턴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모두에게 비전을 주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COVER STORY
미리 준비하는 한·중 FTA 활용 가이드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10월 8일(통권 29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한 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 급속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급 소비재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해 중국 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제품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People

01
박현웅
인포마스터 컨설턴트

Issue Focus

04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06
지상중계:
FTA 비즈니스 포럼

FTA Guide

10
FTA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

FTA Cartoon

11
한·캐나다 FTA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안종만

COVER STORY

12
중국에게 한·중 FTA란?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14
한·중 FTA 체결의 제조업
기대효과와 협력방안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16
한·중 FTA 농업분야
영향과 대책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18
한·중 FTA 체결 후
중국 시장 전략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Power Interview

20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Leader's View

22
미·중 경쟁구도와
한국의 FTA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FTA Lounge

24
미국 수출길 오른
가바쌀을 찾아서

26
가구산업: 전통의 손재주를
뽐내며 한국 수출을 이끌다
양충모 객원기자

28
삼계탕: 세계로 향하는
한국 대표 보양식
양충모 객원기자

FTA Study

30
자유무역의 역사:
⑨서비스무역을 위한
일반협정(GATS)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32
세계의 FTA:
⑨캐나다의 FTA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4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⑨수정테이프와 주요 사무용품
이민선 관세사

36
사후검증 따라잡기:
⑨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Culture Prism

38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만나다

40
황이슬 손잡디자인한국 대표

FTA News

42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등

Notice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맺는 최초의 FTA... 조기 발효로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 누려야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민방문 기간 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캐나다 FTA에 정식 서명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가 체결됨에 따라 북미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기대된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국가와 최초로 맺는 FTA인 만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9월 23일(한국시간)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통상장관이 한·캐나다 FTA에 서명하고 있다.

양국, 10년 내 약 98% 품목 관세철폐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품목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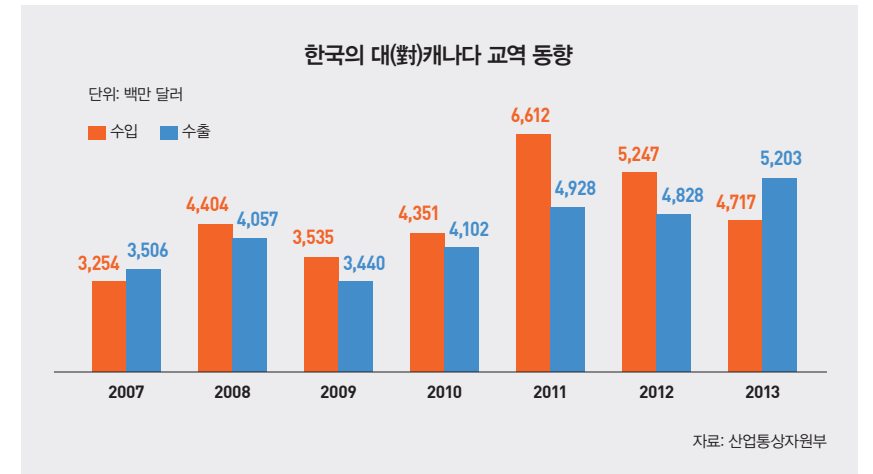
입액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했고, 한국측은 품목수 86.1%, 수입액 92.3%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97.5%, 수입액 98.4%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캐나다 시장의 경우 한국의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2013년 수출 22.3억 달러, 수출 비중 42.8%)의 관세(6.1%)를 3년(24개월) 철폐하기로 해 캐나다 내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6%)에 대

해서는 즉시 또는 3년 철폐, 타이어(7%)는 5년 철폐, 세탁기·냉장고(8%) 등 가전은 즉시 또는 3년 철폐 등으로 합의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섬유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는 대부분 3년 내 철폐로 한·미 FTA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으며, 원산지도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전체 농산물 중 18.8%(품목수 282개)를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해 한·미 FTA(12.3%), 한·EU FTA(14.5%)에 비해 보수적으로 합의했다.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자유통관세할당(TRQ)을 부여했다. 쇠고기(관세율 40%, 72%)는 15년 철폐,



돼지고기(22.5%, 25%)는 5년 또는 13년 철폐 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유연탄, 펄프, 원목, 동광 등 한국의 대캐나다 수입액의 67.6%(2009~2011년 평균 기준) 내외는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서비스·투자 규범은 한·미 FTA와 유사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규범을 채택했다. 더불어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규정했다. 시장접근 측면에 있어서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EU FTA 등 최대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한편, NAFTA 발효 시점(199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FTA의 최고 대우를 한국측에 자동 부여하고, 한국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시점 이후 체결한 FTA 최고 대우를 캐나다측에 자동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한국측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한·미 FTA,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상 양국의 권리·의무를 반영하되, 상호간 GP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1억 원, 캐나다측은 10만 캐나다달러(7만 SDR) 이상의 상품·서비스 조달 계약과, 500만 SDR 이상의 건설 서비스 조달 계약 시 참가 가능하다. 다만 우리의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관련 조달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캐나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양허유형	우리 양허				캐나다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대캐나다)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대캐나다)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 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품목수는 HS코드 2011년 기준, 수입액은 2009~2011년 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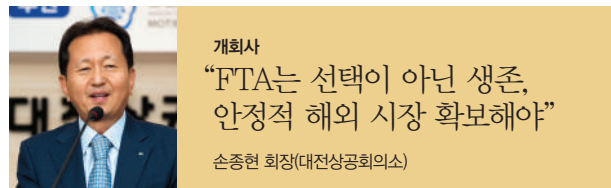
지상중계: FTA 비즈니스 포럼

한·중 FTA, TPP...신중하게 대비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3일 대전·충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주요 도시에서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FTA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후원하며, 지역 내 수출기업인, 광역·기초 자치단체, FTA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국민적 관심이 큰 한·중 FTA 협상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의 결정을 앞두고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9월 23일 대전상공회의소에 열린 FTA 비즈니스 포럼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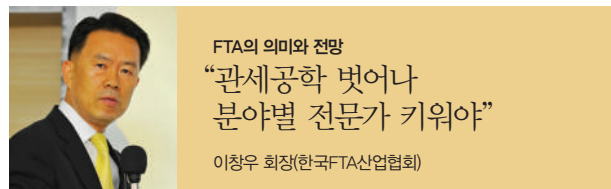


개회사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 안정적 해외 시장 확보해야”

손종현 회장(대전상공회의소)

오늘 FTA 비즈니스 포럼은 급변하는 FTA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세계적인 FTA 추세를 맞아 한국은 세계시장을 확대해 안정적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오늘(9월 23일) 대통령이 캐나다를 국빈방문해 한·캐나다 FTA에 공식 서명했다. FTA를 통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국제교류가 가능해지고, 관세인하 효과를 통해 교역이 증대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오늘 마련한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해달라. 대전상공회의소도 앞으로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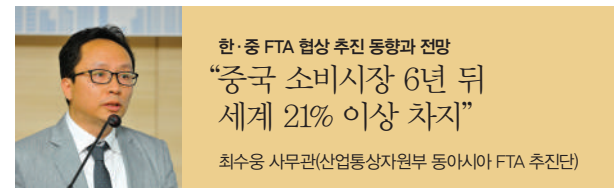
FTA의 의미와 전망

“관세공학 벗어나 분야별 전문가 키워야”

이창우 회장(한국FTA산업협회)

나는 장사꾼이다. 종합상사에서 30년 근무했다. 철저하게 이론이 아닌 현장 위주로 얘기하겠다. 우선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현장 팩트 중심으로 들어 달라. FTA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계속 변하고 있다. 둘째, FTA의 목적은 돈이다. 국가는 국익,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다. 셋째, 지금 FTA는 관세공학에 매몰돼 있다. 이제는 '관세공학+알파=FTA 공학'적 시각으로 봐 달라.

지금 차원이 다른 'FTA 쓰나미'가 몰려 온다. 한·중 FTA는 한·미 FTA, 한·EU FTA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대한 수출시장인 TPP가 다가오고 있다. 대응준비가 시급하다. TPP는 현재 12개국이지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나라까지 합하면 최대 19개국인데, 이렇게 되면 그 나라들끼리 '물 통합, 시스템 통합, 생산요소 통합'이 일어나는데, 이를 대비해야 한다. 또 미국과 유럽의 FTA인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의 파괴력에 너무 무관심하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통합되면 TTIP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 모든 규범이 이들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한 WTO 협상의 지지부진으로 복수국들의 무역협정이 활발하다. IT, 환경,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비할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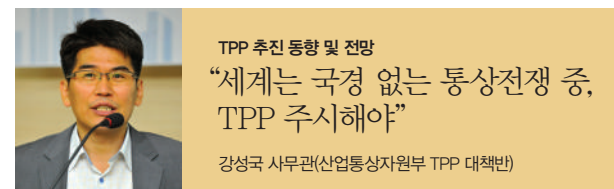
한·중 FTA 협상 추진 동향과 전망

“중국 소비시장 6년 뒤 세계 21% 이상 차지”

최수웅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

이 자리에 무역학과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다. 지금 설명하는 FTA 내용 외에 실제 정부에서 FTA를 추진할 때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궁금해 할 것 같다. 내가 속한 동아시아 FTA 추진단은 한·중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한·일 FTA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9월 22~26일) 한·중 FTA 제13차 협상 중인데, 우리과 모든 직원이 중국에 가 있다. 협상을 하면 대개 150~200명의 인원이 모이게 되는데, 우리측은 70~80명 정도 되고, 한국에서 하게 되면 100명 가까이 된다. 한·중 FTA 협상이라도 협상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WTO 등 무역 협정문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 경제지식과 영어실력을 모두 갖춰야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에 대한 공부를 당부하고 싶다.

지금 중국 내수시장은 연평균 18% 이상 성장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비중은 2009년 전 세계의 7.6%에서 2020년 21.4%로 예상된다. 이런 시장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 한·중 FTA가 필요하다. 또 FTA가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무역규범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TPP 추진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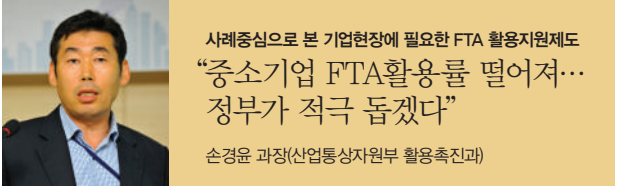
“세계는 국경 없는 통상전쟁 중, TPP 주시해야”

강성국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TPP 대책반)

한국은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표명 후 동향을 파악해오고 있다. 아직 회원국이 아니므로 협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 12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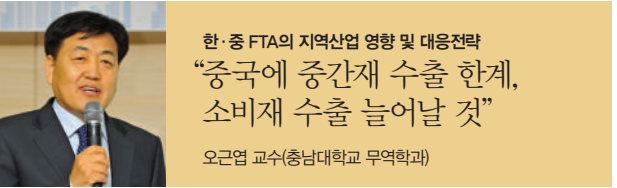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통상전쟁 중이다. 양자 FTA는 이제 메가 FTA로 확대되는 추세다. 개방 수준도 높이고 개방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TPP 회원국들의 명목 GDP는 전 세계의 38.9%다(2012년). 가입의향을 가진 나라들이 추가로 가입하면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12년까지 중국은 TPP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2013년 8월

일본이 가입 의사 표명을 하자, 대립적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선회했다. RCEP에 일본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TPP 협상은 선진국, 개도국 사이의 입장차, 미국과 일본의 입장 차 등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TPP 발효 후 10년 내 GDP는 1.7~1.8% 증가, 무역수지는 연간 약 2억~3억 달러 수준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효 후 10년 내 GDP는 0.12%, 감소, 제조업 분야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한국의 TPP 가입 여부는 12개 회원국과의 예비양자협의 결과, 심층 영향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앞의 두 분이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면 나는 FTA 체결 후 실제 이를 활용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품목분류 등 원산지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기업 내 정보유출 우려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16개)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있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언제든지 FTA 콜센터 1380(번호 1380)으로 전화해 달라. 또한 CEO의 FTA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무료 FTA컨설팅 확대,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 등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와 사후검증 지원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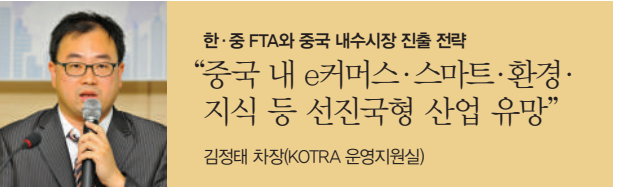
FTA의 본질은 시장개방과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생산요소시장이 개방되면서 투자 및 노동이동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FTA를 통한 이익 증가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에 따라 달라진다. 흑자 분야의 흑자는 더 커지고, 적자 분야의 적자는 더 커진다. 따라서 손실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중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국에 자본재·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가공·조립해 한국 및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다. 한·중 FTA가 체결 되면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 첫 번째 지역 순회 'FTA 비즈니스 포럼'에는 대전·충남 지역의 많은 FTA 관계자 및 기업 실무자들, 무역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의 내수주도 성장 전환으로 중간재와 더불어 소비재(최종재)를 수출할 기회가 커지지만, 가공무역의 감소추세에 따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대만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중국인들의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고급으로 인식되는 한국제품의 인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경우 이렇다 할 산업이 없고, 농업 비중도 크지 않아 한·중 FTA 체결 뒤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근무해서 여기 나오게 된 것 같다. 한·중 FTA는 '제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지만, 봄이 오는 것은 알리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이 다르다. 인하율이 작더라도 되도록 많은 품목의 개방을 원하는 한국과 제한적 품목 위주로 인하율을 크게 반영

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중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다. 중국이 그간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중·싱가포르 FTA에는 없는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환경 등 많은 의제(챗터)를 포괄하고 있다. 한·미 FTA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한·미 FTA와 달리 자연인인동(노동력)은 한국의 요청으로 빠져 있다. 서비스·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포지티브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와 달리 한·중 FTA에서는 개성공단 인정 여부에 대해 중국측의 개방적·수용적 자세가 기대된다.

중국 내수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사업들로는 e커머스, 지식서비스, 스마트SOC, 청녹수(환경), 엔젤(아동) 산업들이 있다. e커머스의 경우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연평균 71%씩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엔 한류와 더불어 지리적 접근성으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서비스는 의료, 문화, IT, 모바일, 디자인 등 그간 불법화된 거래가 양성화되면서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SOC는 지능형교통시스템, 홈네트워킹, 스마트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환경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환경 인프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엔젤산업의 경우 중국의 소득 증가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1자녀 정책이 완화되어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FTA 비즈니스 포럼 개최 일시 및 장소(총 11회)

지역	주관기관	일자	장소(주소)
대전/충남	대전상공회의소	9월 23일(화)	대전상공회의소강당(대전서구 둔산2동 1133)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10월 2일(목)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건지 아트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광주/전남	광주상공회의소	10월 6일(월)	김대중 컨벤션센터 208호실(광주시 서구 상무 누리로 30)
부산/울산	부산상공회의소	10월 14일(화)	부산상공회의소 강당(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대구/경북	대구상공회의소	10월 17일(금)	대구상공회의소 강당(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7)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10월 21일(화)	창원상공회의소 강당(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10월 30일(목)	원주 인터볼고호텔(원주시 동구 순환로 200)
인천	인천상공회의소	11월 4일(화)	인천상공회의소 강당(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제주	제주상공회의소	11월 7일(금)	제주상공회의소 강당(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충북/세종	청주상공회의소	11월 11일(화)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52)
경기	FTA활용지원센터	11월 13일(목)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광고홀(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참가 신청은 주관기관에 문의.

FTA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제도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 **지원 내용**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 신고 전에 세율과 수출입 제한 사항을 미리 알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특별민원화신제도
- **신청·접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우편·인터넷·방문 신청하면 30일내 처리(신청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설명서, 견본)
-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HS(Harmonized System) Code란?

-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 품목분류에서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단위는 '소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진주목걸이의 HS Code 6단위는 7116.10(71류, 16호, 10소호).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천연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1000으로, 양식 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2000으로 구분한다.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하여 심사한다.

- **신청권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격이 있는 자 중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조기심사 신청사유

- ①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우
- ②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내용**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 요청을 하면 동 기간 내에 회신함
- **신청·접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우편·인터넷·방문 신청하면 15일내 처리(신청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특별한 사유 포함), 물품 설명서, 견본)
-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품목번호 확인하기
→ <http://portal.customs.go.kr> → 품목분류정보
- 수출입국의 HS Code 확인(세계HS정보시스템) →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0

한·캐나다 FTA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 23일 한·캐나다 FTA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캐나다와의 FTA가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FTA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게 한·중 FTA란?

세계 자유무역 흐름에 동참 위한 중국의 첫 관문이자 시험대

중국은 2001년 WTO 가입과 함께 인접국(지역)을 시작으로 꾸준히 FTA를 추진해왔다. 첫 시작은 2004년 1월 발효된 마카오와의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였고, 그 후 동남아(ASEAN), 홍콩, 칠레 등과 협정을 맺어왔다. 대만과는 2010년부터 EHP(조기 수확 프로그램) 방식으로 점진적인 협정 범위 확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아이슬란드 및 스위스와의 FTA가 2014년 7월부터 발효됐다.



▲ 그간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FTA'들을 맺어온 중국에게 한·중 FTA는 제조업 강국과의 첫 FTA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2~26일 열린 한·중 FTA 제13차 협상 개회식 모습.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FTA는 6건인데, 2014년 3월 전인대에서는 이 중 한국·GCC(걸프협력회의)·호주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세 나라(지역) 중에서도 9월말 현재 12차 협상까지 끝냈고,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을 합의한 한국과의 FTA 타결이 가장 가시권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른쪽 표에 나타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에게 한·중 FTA가 지니는 의미가 드러난다. 중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국가와 체결하는 첫 FTA라는 것이다. 표의 국가들 중 OECD 회원국은 한국, 칠레,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이다.

이 중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 설비를 갖추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대만을 한국에 견줄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중국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2014년 9월말 현재)

단계	상대국
기체결	마카오(CEPA), ASEAN, 홍콩(CEPA),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ECFA), 아이슬란드, 스위스
협상중	GCC, 호주, 노르웨이, 한국, 한·중·일, RCEP
공동연구	인도, 콜롬비아

자료: 중국 상무부, 중국자유무역구복무당

한·중 FTA의 목적은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즉, 중국이 이제까지 맺어온 FTA가 비교적 안전한 FTA였다면 한국과의 FTA는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큰 위험한 FTA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과 FTA 체결에 임하는 이유는 향후 더 큰 산업 국가와의 FTA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산업국가라면 EU,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 관세인하 협상을 겨누어 보기 전에 한국과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는 선제적인 FTA 타결로 세계 무역 시장과 체제에서 선점 효과를 노리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겠으나, 자기 완결적인 산업 역량을 지닌 내수 위주의 경제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아무래도 FTA 체결에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전체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이다.

이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에게 FTA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방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시장 선점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약간 다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이념을 고수하면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온 중국은 이제 금리·환율의 자유화, 자본계정 태환허용이라는 개방의 마지막 수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는 아직도 성(省) 단위의 생산 물량 경쟁이라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가 부재하다든지, 저부가가치 제품군에 머물고 있다든지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FTA 체결을 통한 경쟁 촉진은 외국에게 시장을 일부 내어주더라도 자국의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며, WTO 가입 이후 이미 초보적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축적돼 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전자·IT 업종에서의 성공과, 보호주의를 구사했으나 변변한 자국 기업의 부상을 보지 못한 자동차 업종에서의 실패가 그것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FTA는 WTO라는 다자간 체제에서 이룩한 진보를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한 걸음 더 밀고나가려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제조업 강국과의 첫 FTA에 신중한 자세 고수

이런 점에서 한·중 FTA는 이제까지 중국이 체결했던 FTA들과 차별성이 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염두에 둔 본격적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과 관련해 한·중 FTA에 임하는 중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치적인 목적에서 체결된 이전의 FTA들보다 훨씬 신중하다. ASEAN, 홍콩, 대만 등 주변 국가와의 FTA 체결의 우선적인 목적은 경제적 이득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ASEAN과의 FTA 이후 중국은 도리어 무역 흑자 확대를 축소하기 위해 애썼으며, 대만이나 홍콩과는 이익을 양보한다(讓利)는 공공연한 방침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그런 식의 통 큰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13차 협상에서까지 상품 양허안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번에도 한국의 TPP 가입보다 한·중 FTA를 앞세우려는 조급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포석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동차와 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에서 핸디캡을 고착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선진 경제권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도 신중할 수 있다. 즉, 투자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의 보편적 적용이라든지, 주요 서비스 업종의 개방 확대라는가 하는 이슈에서 결정적인 진보는 한·중 차원에서 일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EU도 장차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한·중 FTA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중국은 한·중 FTA에서의 개방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NTB) 문제를 지적한 필자에게 중국측 학자가 “그런 얘기는 대국(大國)간에만 할 얘기지 여기서 논할 게제가 아니다”라고 내뱉은 적 있다. 한 학자의 발언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중국의 속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협상을 어디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다.●



한·중 FTA 체결의 제조업 기대효과와 협력방안

‘관세인하’ 넘어 비관세장벽 해소와 양국간 산업협력 효과 주시해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3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7억 달러에서 1,459억 달러로 약 55배, 수입은 37억 달러에서 831억 달러로 약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서 21.3%로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일본, EU를 추월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한·중 FTA 체결 시 제조업 무역수지 개선 기대

한·중간 제조업 교역구조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소수품목에 집중되고, 가공무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 IC(집적회로)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 수입의 경우에도 평판디스플레이, IC반도체, 컴퓨터 등의 비중이 높으나, 수출보다는 집중도가 낮은 편이다.

대중국 가공무역의 비중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성장전략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가공무역은 최근까지도 5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양국간 교역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업종의 산업 내 분업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TA의 체결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 중 관세 인하는 수입가격 하락을 통해 체결국간 무역을 증진시킨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인하된 만큼 수입가격이 낮아져 양국의 수입(상대국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평균관세율은 각각 4%, 3% 수준으로 한국이 더 높은 편이지만, 대중국 수출이 수입에 비해 2배정도 크므로 FTA에 의한 관세인하는 한국의 무역수지에 긍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상 양허수준(수입액 기준 초민감품목 15% 이내)에 준하는 양허(안)과 대중국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는 가공무역의 비중을 고려해 FTA 체결의 기대효과를 추산한 결과, 제조업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연평균 약 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3년 대중국 무역수지의 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등에서 연평균 3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는 반면, 전기제품, 의류, 섬유제품 등에서는 무역수지의 악화가 예상된다.

양국 산업협력 통해 FTA 효과 극대화해야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증대뿐만 아니라, 비관세분야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산업적 특성

주요 제조업의 산업협력방안 예시

산업	협력 방안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공동사업 추진 • 공통 자동차부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및 정보 교류회 추진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신기술분야 관련 한·중 국제표준 협력 • 디스플레이 분야의 양국 협의체 구성 •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공동연구 활성화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체계, 해외자원개발의 공동협력 • 철강협력 시범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 • 인권협의회 활성화 및 국제환경규제 공동협력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복합소재·염색오염최소화 공동기술개발추진 • 양국간 분업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 전시마케팅 분야의 협력 활성화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신제품 관련 표준·인증의 공동개발 • 수급현황, 시장정보 관련 교류 활성화 •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민관협의회 추진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협력채널 구축 • 조립기업과 부품기업의 전면적 협력체계 구축 • 제품검사·규제기준의 통일 및 공동관리감독 실시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술, 중국시장을 고려한 합작투자 활성화 • 원천기술 공동개발 및 상업화기술 교류 확대 • 시장·정책 정보교류를 위한 업계공동회의 확대
생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시장 고급화에 대응한 디자인공동개발 협력 • 상호 인증획득 및 제품검사 공동 기술협력 • 중국시장 목표의 양국간 자본협력 활성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2012~13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1	평판디스플레이	19,972	14.3	집적회로반도체	4,188	5.1
2	집적회로반도체	14,496	10.3	기타 정밀화학원료	2,815	3.4
3	합성수지	7,113	5.1	평판디스플레이	2,815	3.4
4	석유화학 중간원료	4,560	3.3	컴퓨터	2,543	3.1
5	자동차부품	4,458	3.2	배전 및 제어기	2,462	3
6	경보신호기	3,625	2.6	직물제외류	2,012	2.5
7	무선통신기기부품	3,792	2.7	전선	2,005	2.4
8	기초유분	3,956	2.8	개별소자반도체	1,896	2.3
9	제트유 및 등유	3,792	2.7	열연강판	1,689	2.1
10	석유화학 합성원료	3,669	2.6	철구조물	1,592	1.9
	소계	69,433	49.6	소계	24,014	29.3
	총수출	140,096	100	총수입	81,919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관세분야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산업적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진은 중국 내 한국 자동차업체 생산 현장.

2000년대 들어 한·중 무역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먼저 중국의 적극적 개방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 후 이른바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했고, 한국은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증했다. 또한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분업구조가 형성되면서 대중국 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 이외에도 지리적 근접성, 유교 문화권의 친근감 등이 교역규모의 확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을 감안한 다양한 협력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적인 산업기술 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공동구축 등을 통해 양국 기업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양국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술표준, 인증의 개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공동시범사업의 실시, 양국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술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의 중국 파견을 통해 중국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중국 기술·기능인력의 한국연수 추진, 한국인력의 중국 현지적응 연수프로그램 추진 등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국 정부간 교류사업의 확대도 필요하다. 양국간 정책협의나 정보공유는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양국간 정책협의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정책, 시장정보 등의 교류를 확대해야한다. 특히, 중국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은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유용한 정보제공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산업별 특성도 감안해야할 것이다.㉞



한·중 FTA 농업분야 영향과 대책

대부분 농축산물 초민감품목 분류... 발작물 경쟁력 제고 노력 기울여야

우리나라는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FTA에 두고 지난 10년간 50개국과 12개의 FTA를 체결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EU FTA(2011.7월), 한·미 FTA(2012.3월) 등이 발효돼 현재 9개의 FTA가 이행되고 있으며,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도 이미 타결돼 영연방과의 FTA도 곧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중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3년 9월 제7차 협상에서 상품의 자유화수준에 대한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타결됐다. 한·중 FTA는 양국의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단계별 협상 방식을 채택해, 1단계에서는 상품분야의 자유화 방식인 모델리티 및 여타 분야 협상 지침을 먼저 합의하고, 2단계에서 협정문(text) 협상 및 분야별 자유화(R&O)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모델리티 협상 결과로 양국은 상품분야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율화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품목수 10%에 해당하는 1,200여 개의 품목을 초민감 품목군으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제8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에 대한 2단계 협상이 개시돼 제12차 협상까지 진행됐으나 양국간 관심품목의 자유화수준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간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 FTA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농축산물 청정 노력 강화...

축산물·과일 분야 국내 영향 대비해야

한·중 수교 이후 농축산물 교역액은 1992년 9.8억 달러에서 2013년 37.1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은 식량작물, 농산가공품, 채소류를 중심으로 동기간 동안 9.7억 달러에서 28.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대중국 농축산물 수출은 농산가공

품을 중심으로 530만 달러에서 8.2억 달러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1%이지만 최근 수입 증가 폭을 고려할 경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FTA는 기존에 체결한 다른 FTA보다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농축산물의 생산규모가 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하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지만 부분적인 시장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수입되고 있는 양념채소류를 포함한 발작물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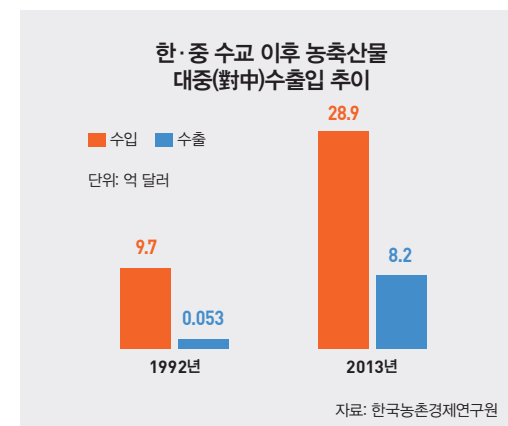
현재 검역상의 문제로 중국의 축산물과 과일은 수입이 제한돼 있지만 중국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병해충 및 가축질병의 청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지역별 교역이 허용될 경우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아직 이행초기라 FTA 수입증가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한·미 FTA와 한·EU FTA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이행초기에 관세인하 폭이 컸던 미국산 오렌지, 포도 등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국내 과일시장의 소비패턴과 생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한·중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효 중인 FTA로 인한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



◀ 국내산 농식품의 안전성 우위와 한류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활용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때다. 사진은 지난 9월 12~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개최한 'K-푸드 페어 2014' 모습.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 확대 정책은 유통·가공 정책과 연계돼 추진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기한 연장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중국 소득 증가로 안전 식품 수요 커

한·중 FTA 경우 협상단계에서부터 농산물의 시장 개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협상 타결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국내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과 교역중인 채소류 중심의 발작물 대책 수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소득안정에 초점을 둔 발농업직불제의 확충과 함께 발작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융자 계획도 수립돼야 할 것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기반을 둔 국내산 농산물의 시장차별화 정책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농식품의 안전성 우위와 한류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활용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은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 검사 등 통관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농가들이 검사, 검역, 원산지증명, 비관세조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㉞



한·중 FTA 체결 후 중국 시장 전략

중국 내 고급품 소비 수요 증가... 한·중 FTA를 기회로 삼아야

한 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력 증대에 힘입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크게 성장한 소비력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 해외 어디를 가도 '요우커(游客)'들을 만나는 것은 이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노동자'를 찾아 중국으로 떠났던 글로벌 기업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해진 것은 당연지사. 한·중 FTA를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국을 다시 볼 필요가 여기에 있다.



▲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고급화되는 반면,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만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은 부족하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유리한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사진은 중국 관광객들로 붐비는 국내 한 면세점.

제2위 소비재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공장'에서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변화는 이미 중국의 대세계 교역 통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재 수입은 2009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해 2013년 1,903억 달러를 기록했고 동기간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9.8%까지 증가했다.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수요는 고급화되는 반면,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킬만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고급소비재 시장에서 중국인들의 구매 규모는 2013년 2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반면, 구매 경로는 해외현지구매(57%), 해외구매대행(7.8%)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 소비재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2014년 8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2억9,088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69.9% 성장했다. 지리적 이점을 살린 신선 우유 수출도 1,01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분유, 양념 김 등의 대중 수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팝과 드라마를 통해 전파된 한류의 바람을 타고 식품, 화장품, 의류기기, 각종 가전제품 등 우리 기업들의 상품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연일 들려온다. 소비재에 대한 높은 관세율과 각종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복잡한 통관절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06년 51억2,956만 달러를 기록,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제2위 소비재 수출시장으로 올라선 데에는 이와 같은 중국 시장 내 기회요인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재시장 공략, 새로운 물로 전략 다듬을 때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답은 중국 소비재시장 공략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화장품(9~10%), 농식품(5~35%) 등 소비재에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대중 수출 확대와 더불어 중국 시장 내 점유율 상승까지도 기대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중국 시장의 유망성과 한·중 FTA를 통해 경쟁국에 비해 우리에게 유리해지는 통상환경을 십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대표적인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품목 중 하나인 농식품의 경우 2013년 1,013억 달러의 거대 소비시장을 형성했지만 중국의 수입은 6.8억 달러로 그 비중은 아직까지 0.7%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FTA를 통해 농식품에 대한 5~35%의 관세부담이 줄어들면 중국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소상들과의 가격 협상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과거 품질경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

대중 소비재 수출 유망품목(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코드	품목명	전 세계 로부터 수입액 (2013)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한국 으로부터 수입액 (2013)	일반 관세율 (MFN)
농식품	04031000	요거트	12.4	45.6	0.3	10
	16042019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밀폐용기에 넣은 것)	1.9	18.1	1.0	12
	19011000	분유	1,477.9	30.1	53.0	5
	20079990	과실 잼	21.7	29.5	0.4	5
	20089931	양념 김	28.4	92.3	23.3	15
화장품	22029000	기타 무알콜 음료	140.0	38.3	47.7	35
	33030000	향수 및 화장수	97.1	13.9	0.1	10
	33041000	립 메이크업	48.2	13.3	2.5	10
	33042000	눈 메이크업	59.8	10.1	2.7	10
	33043000	메니큐어, 페디큐어 등	12.3	9.5	0.3	10
	33049100	파우더 류	53.6	14.0	2.6	10
	33049900	스킨케어 제품	1,124.9	19.1	124.8	10
	33059000	기타 헤어제품	47.2	21.0	6.2	10

※중국 측 HS코드를 기준으로 작성. 연평균 증가율은 전 세계로부터 수입액 기준. MFN(Most Favoured Nation: 최혜국 대우)세율은 WTO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뜻함. (자료: 중국해관총서)

게 되는 셈이다.

화장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이미 1990년대부터 세계 유명 화장품 제조사들이 중국 현지시장을 점령한 상태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의 L사는 중국에서만 20개의 상품 라인을 판매할 정도로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로 관세부담이 줄어들고, 대중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비용절감은 물론 다양한 라인의 상품 출시, 현지 투자 등을 통해 후발 주자로서의 불리함을 딛고 보다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국인의 소비수준 향상과 한류열풍 등 중국의 변화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다소 수동적인 수출 확대 전략에서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장개척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중 FTA가 대중 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교역 플랫폼으로서 13억의 거대 시장 공략에 중요한 열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성의 확대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검토와 전략마련은 필수이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을 다시 들여다볼 적기일 것이다.●

한·호주 FTA는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데 이어 9월 1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호주측은 지난 5월 의회 심의를 개시해 10월 중 발효를 위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호주 FTA는 한국만큼이나 호주측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양국에 중요한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를 만나 호주 측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양국의 한·호주 FTA 연내 비준을 희망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그간 본 한국의 느낌을 어땠습니까?

주한 호주 대사로서는 지난해 4월 부임했습니다. 북한, 몽고 대사로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1980년대였는데, 지난해 다시 왔을 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한국은 OECD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18개월 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서야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엄청난 인적 자본이 바빠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제조업도 최고지만, 음악, 영화, 등에서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호주의 목표는 한국과 호주가 안보, 외교, 문화, 경제 분야에서 보다 가까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건설적 관계의 좋은 사례는 한국이 2010년 G20 의장국을 맡고 2014년 호주가 의장국을 맡은 것입니다.

지난 8월 2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렸던 ‘한·호주 FTA 활용 세미나(9월호 4페이지 참고)’에서 긴 시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개 귀빈들은 축사를 하고 자리를 뜨기 마련인데, 끝까지 있기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있으려 한 것은 그런 세미나들이 언제나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주한호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그 세미나는 특별히 더 관심이 갔는데, 그 이유는 한·호주 FTA의 올해 안 비준(양국 간)이 주한 호주 대사관의 최우선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호주 FTA를 매우 지지해왔고, 연사들이 이에 대해 강력히 지지하는 모습들에 힘을 얻었습니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한국이 자동차, 의료, 기계, 전자제품 등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 대사는,

호주 외교통상부 소속 직업외교관이자 고위간부로, 주태국 호주 대사, 주일 호주 대사관 공사, 주워싱턴 호주 대사관 참사를 지냈으며, 오스트리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에서도 근무했다. 멜버른 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3명의 장성한 자녀를 두고 있다.



고 한 강연자가 생각나는데요, 이는 한·호주 FTA가 광범위한 양국 산업에 걸쳐 균형 잡힌 협상이라는 저의 견해를 확신하게 합니다.

한·호주 FTA로 호주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호주의 4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양국의 교역규모는 303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호주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관세 인하를 통해 호주의 상품들은 한·미 FTA, 한·EU FTA로 관세가 낮아진 미국, EU 상품들과 한국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한국 소비자들은 호주의 고품질 육류, 와인, 유제품, 해산물, 원예품 등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 한·호주 FTA는 호주의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또한 미국과 뉴질랜드(호주의 기발효 FTA국)와 동등한 투자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호주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 인프라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호주에서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호주에서는 호주와 한국이 가장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호주의 천연자원은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제조업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국민들은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과 같은 최첨단 제품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국 관계는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K-팝과 비

빔밥 같은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음식에 점점 더 많은 호주인들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한·호주 FTA로 예상되는 가장 큰 한국의 이익은 자동차입니다. 연내 한·호주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은 연간 백만 대 규모의 호주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얻을 것입니다. 더불어 한·호주 FTA의 영상·음향 공동제작 MOU(양해각서)는 양국의 영화산업에서의 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한국정부의 창조경제 비전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호주 FTA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최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 뒤 한국 GDP를 0.14%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내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4조 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한·호주 FTA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저렴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 관세가 없어지면서 양국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매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의 77%가 한·호주 FTA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며, 67%가 한·호주 FTA의 직접적 효과를 볼 것으로 답했습니다. 한·호주 FTA는 또한 양국 농업 분야에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5월 호주의 포도가 한국으로 첫 수출됐고, 화성에서 재배된 포도가 9월 호주로 수출됐습니다. 한국과 호주의 서로 다른 계절의 차이를 이용해 양국 소비자들은 이제 자국에서 포도가 재배되지 않더라도 동시에 포도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이런 상호보완적인 교역은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



글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미국과 중국, 아태지역서 TPP와 RCEP으로 맞붙어

이어도, 조어도(센카쿠, 다오위다오), 남사군도(난사, 썬양사, Spratlys), 서사군도(시사, 호양사, Paracels)···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곳들로 역학변화에 따라 큰 폭 발력을 지닌 곳들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주변국들과 영토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관할구역을 주장(2012년 3월)한 데 이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2013년 11월)하면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해양과학기지까지 건설(2003년 완공)한 곳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남사군도는 주로 필리핀과, 서사군도는 주로 베트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대 움직임에 미국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군사,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한 미국은 2011년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 아태지역 복귀를 선언하며 들고 나온 카드 가운데 하나가 TPP이다.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협상중인 TPP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은 일본의 TPP 참가가 경제적으로나 경제외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일본이 2010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개방을 통해 침체된 일본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와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농수산 업계의 강한 반대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북대지진 등으로 2013년 들어와서야 TPP 참여를 결정했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은 1990년에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제안한 이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화되지 못했다. 1990년대 말에 발생한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한동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05년 12월에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ASEAN+3)에서 ASEAN+3 형태의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FTA) 설립이 제안됐으나, 2006년 일본이 ASEAN+6(인도, 호주, 뉴질랜드 포함) 형태의 '동아시아포괄적협정(CEPA)'을 제안하게 되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논의가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2012년에 들어서다. 일본의 ASEAN+6 제안에 부정적이던 중국이 이를 RCEP이란 명칭으로 수용한 것이

미·중 경쟁구도와 한국의 FTA TPP와 RCEP 경쟁구도, 한국이 키(key)를 쥐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대결이 여러 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의한 빠른 경제력 축적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 행사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전략에 다각도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FTA 측면에서 보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대표적인 미·중 경쟁구도로 볼 수 있다.



©강경제신경

◀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FTA와 RCEP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FTA 제13차 협상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다. 이는 다분히 미국 주도의 TPP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주도권 다툼보다 미국과의 경쟁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RCEP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TPP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내의 FTA는 물론 TPP 등과 관련해 전략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이 추진하는 한·중·일 FTA와 RCEP의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한·중 FTA의 성공 없이 한·중·일 FTA가 마무리되기 어렵고, 한·중·일 FTA의 성공 없이 RCEP이 체결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각각의 FTA 협상 속도를 보더라도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미·중 세력균형 사이에서 실리 취해야

이런 점에서 필자는 한·중 FTA에서 중국의 양보를 전망해 왔다. 중국이 양보할 가장 큰 분야는 농수산물이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한·중 FTA 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중국의 양보 없이는 협상 자체의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에 끝난 13차 협상에서도 상품양허 분야에 큰 진전이 없었고, 중국이 한국의 초민감 분야인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도 강

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이 나타난 2014년 말까지의 실질적인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FTA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갖고 더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타결의 지름길은 중국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다.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의 개방 폭을 가지고 언제 가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리고 TPP는 공식적인 가입협상 이전에 양국간에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식 협상에 참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요 TPP 협상국과는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은 기존의 FTA 수준보다 얼마나 더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TPP의 영향을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기존의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이다. 농수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 이내지만, 대외통상 문제에서의 비중은 열 배 스무 배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RCEP을 비롯한 동아시아 내의 FTA와 TPP 협상에서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수출길 오른 가바쌀을 찾아서 한국서 개발된 기능성 쌀, 세계를 유혹하다

한국의 쌀산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인의 주식이자 삶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까닭에 경제성을 떠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라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바쌀을 통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힌트를 모색해 봤다.

서울에서 KTX로 3시간에 걸쳐 마산역에 내린 뒤 다시 차를 빌려 1시간여에 걸쳐 경남 고성군으로 향하자, 국도변에 위치한 두보식품이 나타났다.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국종합처리장)의 모습이다. 주변의 논들은 이제 막 노란빛이 깃들기 시작한 벼들로 가득했다.

지난 4월 미국으로 첫 수출된 경남 고성의 가바쌀은 두보식품이 종자를 지역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수확 뒤 이를 사들인다. 1979년 정부미 도정공장으로 시작한 두보식품은 1996년 RPC로 지정됐다. 주력품목은 보리지만, 2011년부터 가바쌀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첫해 수확량은 60톤이었으나 지난해 300톤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360톤을



▲ 가바성분이 현미의 8배인 가바쌀은 인공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교배를 통해 개발된 자연 성분이다. 일반쌀과 겉모습에서 차이가 없으며, 재배도 까다롭지 않다. 사진은 경남 고성의 가바쌀 재배 모습.

바라보고 있다. 올해 4월 미국 첫 수출 당시 20톤을 배에 실어 보냈다.

‘가바’ 효능 알려지며 재배면적도 늘어나

가바쌀에 포함된 가바(GABA)는 감마아미노낙산(γ -amino酪酸) 또는 감마아미노뷰티르산(γ -aminobutyric acid)을 말한다. 백과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감마아미노뷰티르산: 사람의 뇌와 채소, 과일, 쌀이나 현미 등의 곡류에 많이 들어 있으며 혈압저하 및 이뇨 효과 외에 뇌의 산소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뇌 세포의 대사기능을 촉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불안감을 해소하기도 한다. 인간의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인체성장호르몬(Human Growth Hormone: GH)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독성이 없고 혈압강화 작용이 있어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도 이용한다.

▼ 가바쌀은 올해 4월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가바쌀의 국내 생산·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수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가바의 효능이 방송을 타면서 가바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두보식품에 따르면 ‘갈색가바쌀(제품명)’에 함유된 가바의 함유량은 현미의 8배, 흑미의 4배다. 가바쌀은 야생성이 강해 관리 없이도 잘 자라고 섭씨 0도에 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다. 대학원생 때부터 통일벼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 세계적인 식물 육종학자인 서학수 박사가 30년 간 28개국을 돌며 수집한 야생벼 4,000여 종과 국내 최신 벼를 선택 육종시켜 만들어낸 것이다. 2008년 멥쌀은 ‘금탑’, 찰쌀은 ‘노른자찰’로 품종이 등재됐다. 즉, 가바쌀은 별도의 가공을 거쳐 가바 함유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겉보기에도 일반쌀과 큰 차이가 없다. 두보식품이 하는 일은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미국 처리 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것뿐이다.

‘쌀장사 입장에선 밥맛 좋은 게 맘에 들어’

가바쌀의 상품성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나온다. 취재진을 맞이한 허태성 두보식품 부사장은 “쌀장사 입장에선 밥맛이 좋은 걸 최고로 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쌀로 알려진 아키하바라, 충청벼의 식미치가 73~74인데, 가바쌀은 87이 나온다. 가바쌀로 떡을 해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말했다. (식미치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자료)

경남 고성에서 주로 생산되는 데는 이 지역에 위치한 두보식품이 특수작물 분야 선두업체다 보니 대형마트 등에 유통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가바쌀 가격이 일반쌀보다 높은데다, 재배가 까다롭지 않고, 경상남도도 가 기능성 쌀 재배 농가를 지원하다 보니 농민들도 가바쌀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가바쌀 수출은 지난 2012년 말 두보식품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인 유통상인 ‘한남체인’ 회장이 “가바쌀 좀 보내봐라”고 하면서 이뤄졌다. 올해 4월 미국 수출길에 오른 가바쌀은 현지에서 일반쌀의 3배 가격에 팔리고 있다.

허 부사장은 “연간 2만 톤 생산되는 흑미가 건강잡곡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가바쌀도 생산량이 지금의 열 배 이상, 한 5,000톤 정도만 돼도 해볼 만하다”고 얘기했다. 지금은 대형마트 등에서도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마케팅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갈색가바현미’의 가격은 3kg 포장에 1만 8,800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꾸준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키우고 싶어도 공급이 충분치 않아 홍보·마케팅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바쌀 재배면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구산업

전통의 손재주를 뽐내며 한국 수출을 이끌다



1989년
현대중합목재산업
용인공장의
리버트가구 직원들이
수출용 가구 제조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의 가구산업은, 다른 유력 수출 산업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뤄왔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1980년대 가구 수출 부흥기를 거쳐, 이제는 외국 유력 업체들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가구산업은 국민의 생활수준 및 소비성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이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가구산업은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건설경기 호황,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중요시한 인테리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속적인 호황을 누려왔다. 1966년 5월 한국가구공업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한국가구'는 한국의 가구 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 가구의 수출을 이끈 업체다. 한국가구는 가구의 정의도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

았던 당시, 주거 공간 내 침실·키친·거실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전문 가구를 생산했다. 한국가구는 1966년 12월에 제1공장을 준공하고 1976년 제2공장 준공을 통해 규모를 확대했다.

1967년 미국으로 가구 첫 수출

한국가구는 당시로서는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도전했다. 한국가구라는 회사명에서 느껴지듯 국가대표 가구회사로서 국내에서 만든 가구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한국가구

는 설립 이듬해인 1967년에는 '틱 우드' 가구 1600kg과 오락기구 50kg를 미국 롱비치로 수출했다. 수출액은 가구 2,285달러, 오락기구는 30달러, 총 2,315달러였다.

한국가구의 전략은 해외에서 팔릴만한 가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었다. 한국가구는 18~19세기 영국 앤티크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조지언(조지 왕조 풍) 스타일의 가구를 재생산해 서양으로 수출했다. 당시 생산된 가구는 대체적으로 클래식한 것들이었는데, 한국가구의 초창기 제품인 PLD 데스크는 국내에서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상

징으로 통하기도 했다. 한국가구는 해외업체들과 기술 제휴를 맺고 15년 간 미국의 최고급 가정용, 사무용 가구를 수출했다. 한국가구는 일본 시장에 최고급 가정용 가구를 10여 년간 수출하기도 했다.

1975년에는 가구 수출 증대를 위해 한국가구수출조합이 설립돼 국내 가구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수출에 나서게 됐다. 여기에는 한국가구, 안건사, 보루네오, 파고다 등 20여 가구 메이커들이 모였다. 한국가구수출조합은 수출독려반을 편성하고 각 사별로 수출 목표를 정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동남아·유럽·미주 등으로 세일즈맨단을 파견해 국내 가구산업의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수출 활로를 트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구업체의 수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선발업체들이 해외판매점을 개설하고 현지 조립공장을 경영하면서부터다. 특히 1983년에는 가구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내수일변도에서 점차 수출 위주 산업으로 전환된 시발점

이 됐다. 이전까지 나전칠기와 고전가구로 외국시장에 선보인 국내산 가구는 이때부터 현대식가구로 본고장에서 당당하게 세계 유명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됐다.

많은 가구 업체 중 특히 보루네오가구의 선전이 돋보였다. 1971년에 설립된 보루네오가구(현 BIF보루네오)는 국내 가구 수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체다. 보루네오가구는 1966년 원목 오퍼상으로 설립돼 식탁 제조로 본격적인 가구산업을 시작했다. 1980년 국내 최초 가구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비롯해 국내 최초 자체브랜드 해외 수출을 이뤄냈다.

보루네오가구는 1981년에 홍콩과 로스앤젤레스에 국내 최초의 상품직매점을 개설하고 1982년에는 세계 각지에 9개의 쇼룸을 확보해 수출 기반을 굳혔다. 1983년에는 마카오와 시드니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미국 서부지역 및 홍콩 등지에 직판장을 설립했다.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1983년 12월에 개장한 홍콩 뉴월드센터 직매장은 당시 홍

콩 내에서 최대 규모(500평 규모)의 대형가구 전시장이었다. 보루네오가구 직매장의 매출은 1981년 90만 달러에서 1982년 311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1983년에는 60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1980년대는 한국 가구 수출의 절정기

1980년대에는 부엌용 가구의 수출도 늘었다. 부엌용 가구는 품질·규격·디자인 면에서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내 가구산업이 기술 향상을 이뤄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부엌가구 시장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거의 독점하던 상태였다. 부엌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한샘'이다. 한샘은 당시 부엌가구 수출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폭발적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은 1980년이다. 이 해의 수출량은 직전 해의 50배가 넘는 190만 달러에 달했다. 수출 대상 국가도 미국 일변도에서 탈피해 캐나다, 일본, 홍콩, 수단, 카타르 등 다변화됐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500만 달러 상당의 주방 가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전년도 전체 수출액의 2.6배에 달하는 계약이었다.

1985년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는 국내산 가구의 수출 호조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활자로 가득찬 이 광고는 이렇게 시작한다. "가구는 세계수출시장 규모가 연간 100만 불을 넘는 수출유망품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구도 세계수출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보태진다면 옛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우리는 세계시장 석권이라는 목표를 더욱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㉞



1976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한
후 전시된 수출용 가구류를
둘러보고 있다.



삼계탕은 닭의 내장을 제거한 뱃속에 인삼, 찹쌀, 마늘, 대추를 넣고 물을 부은 후 푹 고아 만드는 탕이다. 여러 재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삼과 닭인지라, 인삼(삼, 參)과 닭(계, 鷄)을 합성해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닭이 주재료이기 때문에 인삼보다 먼저 써서 '계삼탕(鷄蔘湯)'이라고도 한다.

삼계탕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조선시대 그 어떤 요리책에도 '삼계' 혹은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삼계탕은 역사가 짧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다만 닭을 삶아 먹는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 하다. 고려 시대 때 닭을 삶아 원기 회복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사실 닭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식용으로 사용돼 왔고, 인삼은 삼국시대 때에도 있었던 작물이다. '삼국지(三國志)'와 '수서(隋書)'에는 "한(韓)에는 꼬리 길이가 5자[尺] 되는 세미계(細尾鷄)가 있고, 백제에는 닭이 있다"고 적혀 있으며, 정창원(正倉院) 문서에서는 일본의 나

라 시대인 756년 시약원(施藥院)에 인삼 50근을 올렸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의 시조 탄생에서 닭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닭은 우리 민족이 닭을 사육하고 있었음을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통 백숙에 삼이 추가된 것은 개화기 때
닭을 이용한 요리 중, 역사서에 삼계탕보다 먼저 등장한 용어가 '백숙'이다. 조선시대에 헤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기록한 원행음요정리 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를 보면,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으로 묵은 닭을 이용한 '진계백숙'이 기록돼 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은 '연계탕(軟鷄

湯)'이다. 1773년 승정원일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연계'란 새끼를 낳지 않는 닭이라는 뜻이다. 19세기 말에 발간된 지은이 미상의 요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는 연계백숙, 연계탕을 "좋은 연계를 백숙해 건져서 뼈를 다 바르고 살은 뜯어 육개장 하듯 하되"라고 소개했다. 당시 연계탕은 지금과 같이 닭 한 마리를 인삼과 함께 그대로 조리하는 형태가 아닌, 육개장과 유사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계탕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보약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1670년 발간된 국내 첫 한글 고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서는 연계찜과 수증계 조리법을 찾아볼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다. 연계백숙에 인삼이 더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삼계탕과 가장 유사한 기록은 1917년 '조선요리제법'으로 '닭국'이란 이름의 요리가 소개돼 있는데,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발과 날개 끝과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뱃속에 참

쌀 세 숟가락과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쏘아지지 않게 잡아맨 후에 물을 열 보시기쯤 붓고 끓이나리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닭국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도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닭국을 한자로 '鷄湯(계탕)'이라 적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닭을 잘 퇴하여 굵게 찌어서 장치고 파를 썰어 넣고 후춧가루를 치고 주물러서 술에 넣고 물을 조금 치고 볶다가 다시 물을 많이 붓고 무나박을 썰어 놓나니 다 끓은 후에 고춧가루 쳐서 먹나니라."

삼계탕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1910년에 일본인들이 작성한 '중추원조사자료'다. 이 자료에는 "여름 3개월간 매일 삼계탕, 즉 인삼을 암탉의 배에 인삼을 넣어 우려낸 액을 정력(精力)약으로 마시는데, 종류 이상에서 마시는 사람이 많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삼계탕은 양반이나 부자들의 약선 음식이었다. 삼계탕이 대중화된 것은 60년대 양계산업이 시작되고, 육류 소비가 늘어난 70년대 중반 이후다. 인삼이 대중화된 것도 삼계탕의 확산에 한몫했다. 이전까지는 닭국물에 인삼가루를 넣었다. 그러나 생(生)인삼인 '수삼(水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음식점들이 '계삼탕'에서 '삼계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생인삼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삼계탕은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최고의 보양음식으로 자리잡게 됐다. 한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의 86%와 외국인의 75%가 삼계탕을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손꼽았다.

일본, 사우디, 미국으로 수출... 중국, EU도 협의 중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과 인삼은 한방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이것이 삼계탕을 보양음식의 최고봉으로 손꼽히게 하는 이유다. 사계절 중 특히 여름철에 몸보신용으로 효과가 좋다. 여름철에는 외부의 높은 온도에 따라 체온이 함께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피부 근처로 혈액이 20~30% 더 모이게 되는

데, 이 때문에 체내의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 때 따뜻한 성질의 닭과 인삼이 체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성질이 뜨거운 음식인 탓에, 평소 열이 많거나 고혈압 뇌졸중 등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삼계탕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맛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을뿐더러 닭을 삶는 요리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메이저 리그 야구 선수 홀리우 프랑코가 삼계탕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한국에서 머물렀던 6개월 동안 삼계탕만 수백 그릇을 먹은 건 유명한 일화다. 그는 2007년 뉴욕 메츠에서 박찬호를 만나서도 "삼계탕 먹자"고 졸랐다 한다.

해외로의 수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사우디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을 시작된다. 지난 5월 우리나라가 미국의 '열처리 가공육제품 수입허용국'이 된 뒤 후속협약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매년 200톤 정도가 수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유럽연합(EU)에도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검역협의를 진행 중이다.●



▲ 삼계탕은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닭이라는 보편적 재료를 사용해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다.



▲ 올해 5월 우리나라가 미국의 '열처리 가공육제품 수입허용국'이 된 이후 한국의 대표 보양식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7월 31일 전북 익산 하림 본사에서 열린 '삼계탕 미국수출 기념식' 모습.



일러스트 전화성

자유무역의 역사-⑨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품무역에 ‘GATT’가 있다면, 서비스무역엔 ‘GATS’가 있다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 국경을 이동하면 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세계 생산·고용에서의 서비스 비중은 60%가 넘지만,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규범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상품에 대한 무역규범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고,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다자간 무역규범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다.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설립 이후 국가 간 상품거래가 크게 증가해 온 것과 달리, 서비스 거래는 1970년 이전까지 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때문에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꾸준히 무역 자유화가 추진돼 왔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무역 장벽이 유지돼 왔다. 1980년대 들어 서비스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서비스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1986년 9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당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무역 자유화 문제를 협의기로 합의했다. 이후 1994년까지 진행된 UR 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제정됐다.

서비스 거래 방식은 모드 1~4로 나뉘어

GATS는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 그리고 각국의 양허표로 구성돼 있다. GATS는 양자간 항공 분야와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 부문을 제외

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된다. 협정문은 서비스 거래 방식을 크게 4가지 형태(mode)로 구분하고 있다. 모드 1(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나, 국제화물운송, 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드 2(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는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해외유학, 해외의료진료, 해외관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드 3(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드 4(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건설인력이 해외에 가서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경우나, K팝 스타들이 해외공연을 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회원국은 ‘일반의무’와 ‘구체적 약속’ 의무 지녀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GATS 의무로는 크게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와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이 있다. 일반의무(general obligations)는 모든 회원국과 서비스 분야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데, 최혜국 대우, 투명성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혜국 대우’는 특정국에 부여하는 ‘특혜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최혜국 대우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GATT와 달리, GATS에서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UR에서 서비스무역이 논의되기 이전에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국제 협정이 없었기 때문

“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에 각국은 각 서비스 분야별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정을 맺고 거래해 왔다. 이와 같은 기존 관행을 감안해서 GATS는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조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은 개별 회원국들의 특정 서비스분야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약속이다.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유통분야에 있어서 상대국 시장에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시장접근), 시장접근 후 진출국가의 유통업체와 비교해 차별조치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내국민 대우)가 자유화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구체적 약속 내용은 개별 회원국의 양허표(country schedules)에 명시돼 있는데, 개별 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GATS 진전 없자 22개국 ‘TISA’ 협상 나서

GATS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중요한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무역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의 광범위한 예외는 여전히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원격 의료나 교육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분야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다자간 협상이 장기간 정체 상태를 보이자, 작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22개국은 ‘복수국간 서비스자유화 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용창출을 통한 내수활성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자간이든 복수국간이든 ‘서비스 자유화 협정’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외부 경쟁 요소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가능하다.●



세계의 FTA-⑨캐나다의 FTA

높은 미국 교역 의존도 줄이려 중남미, 아시아, 유럽으로 FTA 확대 중

캐나다는 북미시장의 대표주자로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전체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데다, NAFTA 발효 후 미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캐나다는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하고, 교역구조를 더욱 탄탄히 하고자 FTA 체결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FTA 네트워크는 중남미를 넘어 아시아, EU 등으로 확장중이다.

캐나다 FTA 추진의 역사는 미국과의 FTA로부터 시작됐다. 양국은 역사적 공통점과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은 자동차협정(Auto Pact) 등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으며 양국 간 관세 인하 및 교역활성화를 추구해 왔다. 이는 캐나다가 교역을 시작한 이래 미국이 캐나다의 제1위 교역국(수출·수입 1위)으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 배경이 됐다. 1989년에 이르러 미국과 캐나다는 무역장벽 제거,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전개될 캐나다 FTA 확대의 초석이 됐다. 그리고 1994년, 캐나다·미국 FTA는 멕시코까지 포함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로 확대되며 북미 지역을 대표하는 FTA로 자리 잡았고, 역내통합이 가속화됐다.

북미에서 중남미로 FTA를 차츰 확대

캐나다는 NAFTA 체결 이후, 다른 국가들과도 FTA를 맺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FTA 체결 초기 단계에서는 지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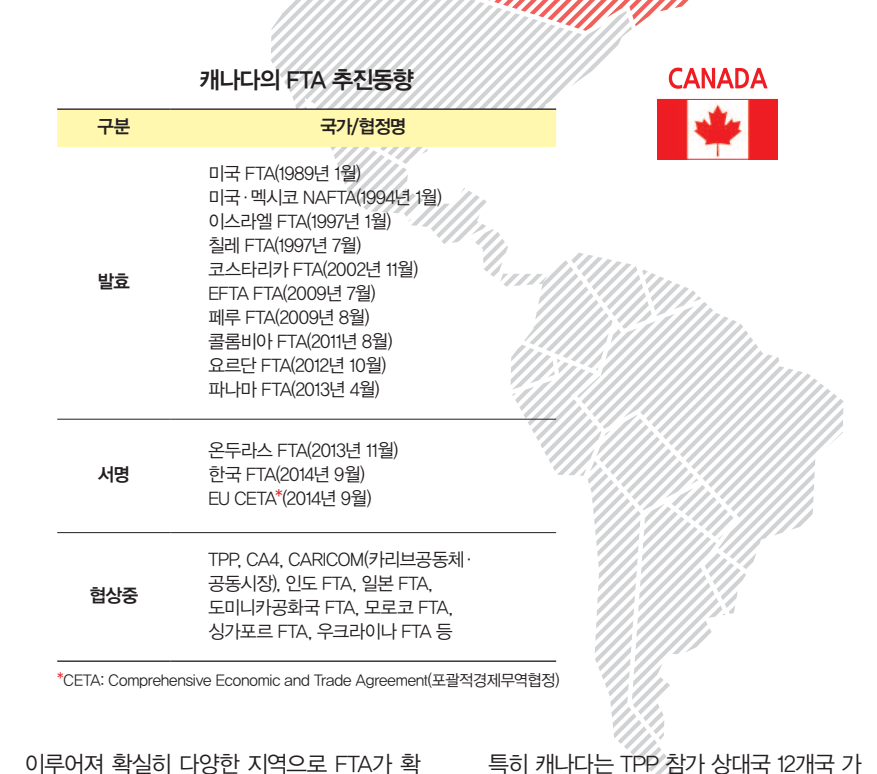
▲ 캐나다는 교역비중이 높은 EU와의 FTA인 캐나다·EU CETA를 지난 9월 26일 서명했다. 사진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서명식 모습에 참여한 헤르만 반 롬파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호세 마누엘 바호수 EU 집행위원장(왼쪽부터).

로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FTAA(미주자유무역지대)¹⁾ 구상에 참여한 것이다. FTAA는 북미~중남미에 이르는 미주대륙 34개 국가의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계획이었으나,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가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국가만을 상대로 양자 협상을 벌였으며, 칠레(1997년), 코스타리카(2002년) 등과의 FTA를 발효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2001년 CA4²⁾(중미 4개국)와 FTA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지자, 역시 타결 가능성이 높은 온두라스와 양자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2000년대 후반 아시아, EU 등으로 확대

캐나다는 중남미 지역 이외로도 FTA 체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9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를 통해 EU 진출을 향한 관문을 열었고, 2012년에는 요르단과의 FTA로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FTA를 맺었다. 2006년 보수당 집권 이후 FTA 체결 움직임이 보다 적극성을 띄게 된 것이다.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자유무역을 통한 수출확대를 대표적인 경제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역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전체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일 뿐 아니라, 캐나다의 상위 20개 수입품목 모두에서 미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가 발효한 10건의 FTA 중 절반이 2006년 이후에 발효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06년 이전에는 FTA 체결국이 중남미에 집중됐던 것에 반해 2006년 이후에는 유럽, 중동지역과의 FTA 발효가



이루어져 확실히 다양한 지역으로 FTA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수당이 2011년 총선에서도 승리하며 다수당이 됨에 따라 캐나다의 FTA 체결은 더욱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던 보수당이 EU와의 FTA 타결을 통해 지지율 반전에 성공한 경험을 통해 향후에도 보수당이 FTA 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3일 서명한 한·캐나다 FTA 역시 하퍼 총리의 리더십이 큰 몫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캐나다는 교역비중이 높은 EU와의 FTA(캐나다·EU CETA)를 지난 9월 26일(캐나다 시간) 서명한 상태이며, 이외에도 여러 국가와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 이어 인도, 일본과 협상을 지속하고 있고, 태국과의 FTA도 예비협약 단계에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멕시코와 함께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해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경제통합도 노리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TPP 참가 상대국 12개국 가운데 칠레, 페루, 미국, 멕시코 등 미주 지역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7개국과 FTA 미체결 상태에 있어, TPP 체결 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캐나다의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현재 67.7%지만 온두라스, 한국, EU와 발효 시 77.6%, TPP 체결 시 장기적으로 전체 교역의 80%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의 경제영토 또한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의 69.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㉑

1)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엔티가바루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34개국이 단일 경제공동체 수립을 목표로 1994년 12월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5년 이후 협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 CA4(중미 4개국, Central America 4):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⑨수정테이프와 주요 사무용품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동일 분류 필기구는 대부분 HS9608에 해당

우리나라는 사무용품의 시장 개방과 함께 주요 사무용품의 수입규모가 대부분 확대되어 만년필과 같은 고가품은 미국과 유럽산이, 일반 볼펜의 경우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저가품에 의해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샌드위치 상황이다. 그러나 사무용품은 마케팅 노력을 강화할 경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유망품목으로, 현재 중국 이외에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수정액은 안료, 점결제, 용제를 주성분으로 한 백색 등으로 착색된 불투명 용액으로서 필기를 하거나 타이핑 할 때 글의 잘못된 부분이나 틀린 글자를 고치는데 사용된다. 통상 작은 병, 붓 또는 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매용의 수정액은 관세율표 HS3824호의 해설에 따라 HS3824.90호에 분류한다.

최근에는 수정액과 동일한 용도를 가진 수정테이프(correction tape)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수정테이프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실리카(silica) 등으로 조제된 백색 안료를 스트립상 필름의 한 면에 코팅하여 롤상(폭 5mm×6m)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 포장한 형태다. 수정테이프의 헤드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 위에 대고 미끄러지듯이 끌면 코팅필름이 종이표면을 덮게 된다.

과거에는 수정테이프에 대해서는 품목분류가 확실한 수정액과 달리, 본질적인 특성이 수정기능을 하게 하는 안료에 있는 물품으로 보아 HS3206호에 분류할 것인지, 수정의 기능으로 볼 때 수정액과 유사한 물품이고 두 제품 모두 백색 안료를 글씨 등을 수정할 때 원하는 부분을 덮어서 가리는데 사용하므로 수정액이 분류되는 HS3824호에 함께 분류할 것인지, 또는 HS3824호에는 수정액만을 언급하고 테이프 형태의 물품에 대해

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수정테이프가 만들어진 주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으로 보아 HS3926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사항이었다.

그러나 2012년 제5차 HS 개정에 따라 HS 38류 주에 수정테이프 내용이 신설되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HS3824호 (22)항 내용에 '소매용으로 포장한 수정용 테이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디스펜서에 담겨져 제공되는 수정용 리본 두루마리로서 타이프문서, 필서, 사진복사, 오프셋인쇄마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에 있는 글씨 또는 타이프 인쇄 오류 또는 불필요한 기호를 감추는 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다른 폭과 길이로 이용 가능하다. 수정리본은 리본의 표면에 도포된 불투명한 안료 코팅으로 형성되어 있다. 코팅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 위에 전사 헤드를 압착함으로써 도포된 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정액이 수정테이프로 발전된 점으로 볼 때 수정테이프도 HS3824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합물이 분류되는 HS3824.9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접착성이 있는 뒷면을 가진 종이로 구성된 수정용 테이프는 HS48류에 분류되며, 타자기용 리본 또는 이와 유사한 리본은 HS9612호에 분류된다.

필기도구 등 주요 사무용품

연필깎이는 연필을 깎는데 사용하는 기구로, 칼날이 통속에 들어 있어 구멍에 연필을 끼우고 돌리면 연필이 저절로 깎이는 기구이다. 연필깎이에는 수동으로 사용하는 비기계식과 기계식의 것이 있는데, 기계식의 것은 보통 직육면체의 몸체를 가지며 칼날 문치, 핸들, 연필 삽입구, 연필고정 노브(knob), 책상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클램프용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다.

기계식 연필깎이는 HS8472.90호에 분류되고 휴대가 가능한 비기계식(수동식)의 연필깎이는 HS8214.1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완구의 특성을 갖춘 연필깎이 형태의 장난감이라면 HS9503호에 분류된다.

필기구를 보면, 과거 펜촉을 잉크에 찍어 사용해야 하는 시대에는 펜을 휴대하기가 쉽지 않고 필기할 때 잉크의 번짐이 잦아 불편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잉크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여 펜 끝에 잉크를 강제로 공급하는 방식의 펜이 개발되었다. 이것이 바로 만년필이다. 만년필은 펜촉 속에 잉크를 저장하고, 사용할 때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잉크가 알맞게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진 필기용구이며, 영국과 독일 등 유럽국가로부터 주로 수입되고 있다.

샤프펜슬은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또

는 메카니컬 펜슬(mechanical pencil)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샤프심이라 불리는 가는 연필심을 끝으로 밀어내어 깎을 필요가 없는 연필의 일종이다. 이러한 만년필과 샤프펜슬은 대표적인 필기구인 볼펜이 분류되는 HS9608호에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볼펜은 HS9608.10호에, 만년필은 HS 9608.30호에, 샤프펜슬은 HS 9608.4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연필은 HS 9609.10호에 분류된다.

기타 사무용품들은 주로 재질과 용도를 중심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종이인 A4 용지(크기 210×297mm)는 필기용 또는 인쇄용의 도포하지 아니한 종이(1m²당 중량 약 80g)가 분류되는 HS4802.56호에 분류되며, 스테이플 등 비금속제의 사무용품은 HS8305호에 분류된다.

국내에서 제조된 사무용품에 적용되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주로 CTH 또는 CC의 세번변경기준으로, HS 코드 4단위 또는 2단위가 다른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를 충족한다. 그러나 한·EU FTA의 HS9608호의 경우 동일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펜촉 등은 비원산지 제품을 사용하여도 관계가 없어, 비원산지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사후검증 따라잡기

⑨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¹

질의사항에 부가적인 설명을 충실히 기재하라



앞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미국 세관(이하 CBP)의 CBP Form 28의 형태, 섬유 및 의류 관련 검증 질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CBP의 검증 요청 시, 주로 원산지 충족 요건 확인, 소요 원재료에 대한 정보(HS Code, 원산지 등), 거래정보 및 생산기록을 통해 CBP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판정하게 되고 그 형태는 CBP Form 28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검증요청을 받은 자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구성해야 할까?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 자료를 작성해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제출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아 심사자가 관련 자료를 해석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원산지 불인정 통보를 받고 다시 관련자료 및 설명을 추가 소명하는 등, 초기대응 미숙으로 자료를 두 번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CBP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요청 서류를 제출 시 이를 구성하는 기술적 방법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소개될 검증 소명자료 예시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fta1380.or.kr> → FTA활용 → 사후검증 대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1. 수출자/제조사 소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수출자/제조자의 실체성 소명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를 동시에 하는 경우 '수출자(Exporter)'라고만 기재하지 않고 제조까지 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 수출자/제조사 회사명 (영문, 한글 병기), 주소, 홈페이지(존재하는 경우)

About Exporter/Manufacturer

1. Exporter/Manufacturer: KITA Automotive Co., Ltd. (in Korean: KITA 오토모티브(주)).
2. Address
 - A. Head office: Seonggok-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 B. Business office: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 C. Website: www.kitaautomotive.co.kr
3. Business Registration
 - Please see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Factory Registration Certificate attached (Attachment #1).
4.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5. Number of Employees: 43 (as of 2013).
6. Annual Sales: \$630 million (as of 2013).
7. Contact Information
 - A. Telephone: 82-31-111-1111 (head office) / 82-2-6000-0000 (business office)
 - B. Person in charge: Kim Jeon Dam (direct number: 82-31-111-1112)
 - C. Email:
8. Company Overview

KITA Automotive Co., Ltd. is an automotive oil filter manufacturer whose head office is in Ansan and business office in Seoul, Korea. Approximately 50% of its productions are supplied to automobile makers in Korea, and the other half to foreign automobile makers in Germany, France, and US, among others. KITA Automotive's oil filters feature excellent filtering performance that helps improve fuel efficiency and are sought-after by world-class car makers and aftermarket.

 - Please see the Company Overview (Attachment #00) and 2013 Business Report Submitted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f Korea (<http://dart.fss.or.kr>) (Attachment #02) attached.
9. Major Products and Exports

KITA Automotive is a specialist in manufacturing filters for combustion engines. Other products include a range of supplementary components for engines to help improve fuel efficiency.

- 사업자 등록 및 공장 등록 (영문본 준비, 사업자등록에 업태/업종이 제조, 수출 등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확인)
- 대표자, 근로자 수, 매출액 기재
- 연락 가능한 실무 담당자 정보(성명, 직위, 전화번호, e-메일 등)
- 주요 사업 및 주요 생산품 소개

2. CBP Form 28

CBP로부터 받은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는 답변과 함께 검증 담당자에게 송부돼야 한다(CBP Form 28 배면 6번 항목 참고).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ㅇ월 ㅇ일 귀 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서를 아래와 같이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한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수취한 CBP Form 28을 첨부한다.

만약, 수입자가 Form 28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수출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라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만 수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3. 물품정보 기재

물품정보는 크게 물품 자체에 대한 설명과 품목분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1) 물품정보(개요)

검증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기능, 용도, 재질, 성분을 중심으로 사진을 첨부해 설명하면 더욱 좋다.

- 해당 선적건에 대한 송장(invoice) 번호, 송장 상의 물품(item) 품명 및 품번
- 별도의 물품 설명 카탈로그가 있다면 참고 자료로 첨부, 또는 CBP에서 샘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송부

(2) 품목분류

물품의 HS Code 6단위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필요로 한다. 수입자가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협조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품목을 분류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보통 이 부분은 관세율표 통칙 및 해설서 내용에 의거해 작성하기 때문에 관세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다면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내역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4. 운송관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언제 어디서 어떤 선박/항공기에 선적돼 어느 항구/공항으로 도착했는지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신고필증(영문): 통관지 세관에 신청해 발급받거나 통관을 수행한 관세사에게 의뢰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출자 이름이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신청 시 회사 영문명 등을 기재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송장(invoice), 물품명세서(packing list) 및 운송서류 (B/L, AWB 등).☎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

HS 8421.23(No. 8421.23)

i.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421 includes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and 8421 Explanatory Note described about the oil filter as follows;

I.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II.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r gases
A. Filtering and purifying machinery, etc., for liquids, including water softeners.

1. Domestic type water filters
2. Filter candles for man-made textile manufacture,
3. Oil filter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machine-tool

B.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etc., for gases
C. ...-omit)

ii. In accordance with Rules 1 and 6 of the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GRI)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mentioned item falls into the subheading 8421.23 (HTSUS 8421.23.0000).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만나다

꿈을 위해 젊음을 바치는 주인공들은 바로 배우들의 모습이었다

걸으면 센 척, 속은 어린 **겨양이**
배우 **박아름**

눈치 제로, 사고뭉치 고양이 **몽치**
배우 **공훈**

한섬 허당 로맨틱 가이 **경민**
배우 **이대일**

속 깊은 엉뚱발랄녀 **정은**
배우 **이시원**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온갖 '불 것'이 넘칠수록 사람과의 만남은 더욱 그리워지는 법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대학로에는 사람 냄새 나는 아날로그적 정서를 간직하면서도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스피디한 연극으로 젊은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장기공연 중인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지루할 새 없이 쏟아지는 대사의 재미와 88만 원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등 배우들의 열연과 탄탄한 대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옥탑방 고양이(이하 옥고)'는 2001년 인터넷에 연재된 소설이 원작이다. TV 드라마(2003)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은 검증된 스토리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강요받는 사업가 집안 출신의 남자주인공(경민)과 드라마 작가의 꿈을 위해 타지에서 고단한 현실을 감내하는 여자주인공(정은)이 이중계약된 옥탑방에서 동거하며 티격태격하다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다. 인터뷰한 배우들은 9월 25일 오후 3시/5시 공연팀이다. 평일 오후였지만 많은 관객들이 객석을 채워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기자 반갑습니다. 우선 '옥고'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대일 올해 1월 연습을 시작해 2월부터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옥고'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배우라면 누구나 탐내는 역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배역과 잘 맞았는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원 2년 전 이 공연을 처음 봤는데요, 너무 하고 싶었던 공연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오디션을 봤고, 7월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지금 1년 3개월째 계속 하고 있어요.

공훈 저도 공연을 볼 때 몽치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는데요, 오디션을 통해 올해 2월부터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아름 저는 시원 씨와 같아요. 이런 구성의 공연을 처음 봐서 놀라고 재밌었어요. 겨양이 캐릭터와 잘 맞고 또 즐거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기자 '옥고'의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일 특정 부류가 아닌 남녀노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은 것이라고 봐요. 특히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한 사람이라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원 어떤 연극들을 보면 억지스런 스토리, 억지스런 감동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옥고'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웃음 포인트도 많아요. 대사가 많고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즐거우면 관객도 즐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자 연기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박아름 제 역할만 보면 관객과 대화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관객이나에 따라 반응이 다르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보니 그 부분은 늘 긴장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옥고'가 연습기간이 긴 편에 속하고, 연습 분량도 많아요. 한 장면만을 하루 내내 연습하기도 하고요. 가벼워 보이지만, 결코 쉽진 않죠.

공훈 제 경우엔 많은 배역(인 8역)을 소화하다 보니, 그에 대한 순간순간의 집중이 어려운 점의 하나고요, 그렇지만 더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그 전에 많은 연습을 통해 커버하려고 하고요.

기자 관객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계산된 부분이 있나요? 아예 호응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공훈 관객의 반응을 노리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땐 내색하지 않아야 하죠. 반응이 좋지 않은 날엔, 연기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관객들 반응에 좌우되는 공연은 아니니까요.

박아름 연습 때 여러 변수들을 미리 가정해서 연습해요. 배우들끼리 관객 역할을 해가며 훈련을 하죠.

기자 오글거리는 연기를 할 때 '더 오글거리게 해야지'라고 의도하는 건가요?

이대일 웃기려는 욕심이 사실 있지만, 스토리를 더 살릴 수 있도록 개그는 전체적으로 눌러 줍니다. 공연 중에는 관객들이 많이 웃지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웃긴다'는 얘기보다는 '스토리가 좋다'는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이시원 저 스스로 오글거리게 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건 연극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고 봐요. 관객들도 현실에서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해봤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마지막으로, '옥고'를 20자로 표현한다면?

이대일 볼수록 연애하고 싶어지는 리얼 연애 지침서.

이시원 청춘들의 특별한 꿈과 생각이 가득한 재밌고 즐거운 공연.

공훈 마법처럼 특별한 사랑이 시작되는 로맨틱 코미디.

박아름 공감가는 대사, 탄탄한 스토리, 가장 완벽한 작품.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이슬 손짜디자인한복 대표 패션 리더들도 환호하는 일상의 한복을 만들다

황이슬 대표의 사무실은 전주역 광장에서 보일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변화가는 아니어서 주변 카센터와 렌탈업체 창고들이 즐비한 가운데, 번듯한 건물이 눈에 띈다. 4층 중 1층은 황 대표의 부모님이 침구류 가게로, 2층은 황 대표의 사무실, 4층은 가족들의 살림집이다. 3층과 지하 1층은 임대를 주고 있다. 자서전 표지에 나온 '20살 한복집 사장, 8년 만에 빌딩 주인이 되기까지의 리얼 창업 스토리'라는 부제의 바로 그 빌딩이다. 흔히 '빌딩 주인'이라고 하면 일 안하고 편하게 돈 버는 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황 대표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남다른 발상과 노력이 성공의 비결임을 알 수 있다.

만화 '궁'의 '코스프레'가 인생을 바꿨다
황 대표의 학창시절은 '무색무취'에 가까웠다. 특별히 사고를 친 적도 없고, 전주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 교복 줄이기도 한 적 없었고, 학교 밖에서도 명찰을 떼지 않았다. 대학 진학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면서 취업경쟁률이 높지 않은 산림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북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대학 1학년



때 인생을 바꿔놓을 작은 일탈이 시작됐다. 입학 직후 '혼자 동아리 가입하기 쑥스럽다'는 친구의 요청에 별 생각 없이 만화동아리에 들어갔다. 5월 축제가 닥쳤고, 미션이 떨어졌다. 만화를 출판하던지, 만화 캐릭터의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를 하라는 것이었다. 손재주는 있었지만, 만화 그릴 자신은 없어 코스프레를 선택했고, 그 대상은 만화 '궁'의 주인공이었다. 조선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21세기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설정의 만화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처럼 길고 불편한 한복

이 아니라 짧고 경쾌한 한복이었다. 만화에서만 나오던 이 한복을 실제로 입어보기로 했다. 당연히게도 이를 파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마침 부모님의 이불 가게에서 만들다 남은 천을 이용해 만화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축제일에 이를 입었는데, 무릎이 드러나는 길이의 치마와 민소매 저고리의 한복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지만, 축제라서 어색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도 인생 최대의 일탈이었는데, 또 한 번의 시도가 이어졌다. 그 옷을 입고 집까지 가 보기로 한 것이

손짜디자인한복 황이슬 대표는 28세다. 직장인이자면 회사에서는 막내급으로 허드렛일을 도맡고 있겠지만 그는 당당한 CEO(최고경영자)다. 그가 만드는 것은 기존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패션 한복'이다. 그의 자서전 '나는 한복 입고 홍대 간다'의 제목처럼, 한복을 입고 한국 최고의 핫 플레이스(hot place)인 홍대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패셔너블한 한복이다.



올 8월 8일 홍대에서 열린 한복 퍼레이드 모습.

다. 흠뻑훔쳐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예쁘다" "그 옷은 뭐냐"는 관심도 받을 수 있었다. 축제가 끝난 뒤 이 옷을 인터넷에 중고물품으로 내놔는데, 신기하게도 5일 만에 팔렸다. 2006년 당시 판매된 가격은 8만 원. 실수로 게시물을 안 내렸더니 '그 옷 안 파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이런 옷을 원하는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축제가 끝난 지 불과 3개월 뒤인 8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대학교조차 고등학교 다니듯 했다는 모범생에겐 사업자등록부터 쇼핑몰 오픈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그렇다고 바로 대박을 친 것은 아니었다. 처음 1~2년간은 큰돈을 번다기보다는 취미 반, 재미 반이었다. 조금씩 알려지던 중 방송출연을 계기로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됐다. 아기 돌잔치 등에 한복이 필요했던 젊은 엄마들은 '어르신'들이 입는 진중한 한복이 아닌 경쾌하고 감각적인 한복을 원했고, 그의 한복이 그런 요구들에 딱 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그렇듯,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뭐든 '잘 된다'고 하면 유사업

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법이다. 레드오션에서 경쟁했다면 결국 공멸의 길을 갔겠지만, 그는 이를 피해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해외 진출'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외에 사무실을 낸 것이 아니라, 해외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영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다. 때마침 한류 붐이 일면서 영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한복을 어떻게 구하나, 어디서 살 수 있냐'라는 문의가 심심찮게 올라왔다. 창업할 때처럼 또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해외연수나 토익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던 그는 영어에는 약했지만, 해외 쇼핑몰을 참고하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시도한 '해외 진출'이 지금은 중요한 매출 기반이 됐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나라를 가리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고답적 한복 고집할 필요 없어'

실제로 그는 자서전 제목처럼 한복 입고 홍대를 갔을까. 그가 올 8월 홍대에서 벌인 한복 퍼레이드 사진을 보면 흔히 생각하는 '한복'이 아니라 정말 '홍대'와 잘 어울린다. 가슴이 아

닌 허리에서 묶은 무릎 길이의 치마, 고름이 없이 한복의 선만 살린 상의를 입은 모델들의 풀어헤친 갈색 웨이브 헤어, 하얀 끈 샌들, 가죽 백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한복이라기보다는 한복의 느낌을 가미한 일상복 같다. 그러나 소재와 철학과 의도는 한복이다. '이게 한복이냐'는 주위의 물음에 황 대표는 "지금 우리가 '한복'이라고 생각하는 한복도 엄밀히 말하면 전통의 한복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한식이 현대 입맛에 맞춘 한식인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답한다. "치마가 길어서 불편하면 짧게, 저고리가 짧아 불편하면 길게 '재배치'했을 뿐, 그 안에 든 것은 한복"이라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황 대표는 전통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뿐이다. 한국적인 것이 충분히 상품성을 갖추고 해외에서도 통하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매출을 물어봤다. 최근 언론에서 매출만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다 보니 즉답을 피했다. 기존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월 매출은 국산 중형차 수준이었다.☺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FTA 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용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금)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2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코엑스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부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운전자금 상환기간도 연장(3→5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무역피해 접수·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심의는 무역위원회가 수행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 서류가 과다해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서류제출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시범사업으로 무역조정지원 전담 컨설턴트를 채용해 무역조정지원 기업 발굴,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 2015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력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에서는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세관장확인제도, 원산지관리 우수기업인증 등 3개 지원 사업을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발간계획'을 보고하고, 중소기업 생산 비중이 높고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FTA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동장치, 밸브, 화섬직물, 화장품 등 4개 품목은 10월 중 발간하고, 생활용품(밀폐용기, 캐릭더용품 등) 2개 품목은 12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FTA 1380 홈페이지(www.fta1380.or.kr) 등으로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동영상으로도 제작·제공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FTA로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업 기업의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수출·협력기업에 대해 맞춤형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FTA 제5차 협상 개최



한·중·일 FTA 제5차 협상이 9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를, 일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검역 조치에 관한 협정),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논의가 진행됐다.

금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FTA'가 돼야 한다는 3국의 공동된 인식 하에 협정 대상 범위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했고,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해 산업협력·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및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3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논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상 진행 후 수석대표 협상을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중·일 FTA 제6차 협상은 11월 경 일본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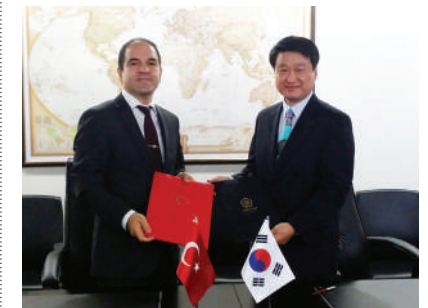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 제출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FTA의 비준동의안을 9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해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자국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한·호주 FTA 발효 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제조업 378명, 농림어업 -481명, 서비스업 3,110명). 재정과 관련해선, 연평균 약 79억 원의 세수 감소

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2년 기준 약 204조 원) 감안 시,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4%)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



9월 18일(목) 터키 경제부(양카라)에서 한·터키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과 야피치(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 국장은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시행했다. 양국은 지난 7월 4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이래 법률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

가서명된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은 9월 19일부터, 한글본(초안)은 9월 26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국민 여론 수렴기간(20일) 종료 후 제출된 의견사항을 종합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검토를 포함해 관련 의견이 있으면 FTA 홈페이지 참여마당/의견제출 방에 10월 15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양국은 2015년 초 정식서명(signing)을 추진기로 했으며, 국내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modality



한·중 FTA는 한국이 맺은 다른 FTA와 달리 상품 분야의 자유화 방식(개방 범위와 폭)을 먼저 정하는 협상지침(modality: 모델리티)을 먼저 정하는 1단계 협상에 이어, 협상지침을 바탕으로 협정문 및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하는 2단계 협상으로 이뤄져 있다.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지난해 9월 제7차 협상에서 협상지침에 합의해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르면 상품분야 협상지침은 일반품목군(관세 10년 내 철폐), 민감품목군(관세 10~20년 장기 철폐), 초민감품목군(관세감축, TRQ, 양허제외)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개방률(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이며, 이는 개방률 99% 이상인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상품 협상지침 외에 여타 협상지침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는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합의했으며, 투자 분야는 한·중, 한·중·일 BIT(양자간 투자 협정)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합의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 상거래, 경제협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하는 FTA’를 읽으면서 무역실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FTA 실무전문가 교육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FTA를 더 공부하고 싶네요. FTA 하면 반감부터 생겼는데 월간지를 읽으면서 이제는 FTA를 이해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박윤식(서울시 은평구 은평로3길)

FTA로 배 수출이 효자종목으로 떠올라 좋았습니다. 천안이 배의 재배지란 것도 더불어 알게 되었구요. 장미 한류를 이끌고 있는 전주의 농업 회사법인 로즈피아의 출하장은 네덜란드같은 화훼국가를 위협할 정도네요. 전남·전북 지역 화

훼농가의 생존의지로 시작된 수출이 장미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혜선(광주시 북구 천변우로)

최근 오래된 벽지를 바꿔볼 생각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벽지와 벽지페인트’ 실전 품목분류 사례 기사에서 기대 이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운(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세계최대 공장에서 세계최대 시장으로 변해 버린 중국경제 구조에 발맞춰 우리

나라의 뛰어난 브랜드와 기술력을 활용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전략을 구사한다면 우리경제에 한·중 FTA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석(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세계가 중국을 위해 물건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현실을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기사를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시장을 겨냥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상품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봉래(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전화 한번으로 기업 애로 해결”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는 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 (월-금, 09:00~18:00)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털 **기업마당** www.1357.go.kr

W 자금 상담

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의 정책자금 및 기보/신보 보증관련 상담

소상공인 상담

소기업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상담

기술개발(R&D) 상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신청부터 사업비 사용 승인까지 상담

판로/수출 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전시회,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상담

창업 상담

법인설립절차, 공장설립, 창업보육센터 입주 문의, 창업지원 사업 신청 등 창업관련 절차/법·제도/지원 상담

인력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